

내년 2월, 내가 받게 될 대학원 졸업장에는 아마도 보이지 않는 이름 하나가 더 적혀 있을 것이다. 학위는 내 것이지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준 남편의 이름이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대학원 과정이 이제 한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처음 진학을 결정한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더 깊이 있게 하고 싶다는 욕심과 전문성에 대한 갈증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고 보니 욕심과 열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일이었다.

주중 저녁시간에 한 번, 토요일 하루 종일 수업을 들어야 하다 보니, 평일 밤에는 매번 과제와 발표 준비로 늦게까지 잠 못 이루는 날이 다반사였다. 공정무역 활동과 협동조합 운영도 멈출 수 없었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스물네 시간이지만, 가사와 일을 함께 책임지는 사람에게 공부할 시간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시간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다.

등록금을 내야 할 때가 되면 나는 농담처럼 ‘남편 장학금’을 받는다고 말한다. 성적에 따라 한 학기는 학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받았지만, 매 학기 나는 남편 장학금을 받았다. 나의 배움에 대한 믿음으로 마련된 장학금이다. 경제적인 부담을 함께 감당해준 것만으로도 고맙지만, 남편 장학금의 진짜 내용은 감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내가 책상에 앉아 있는 동안 가사를 나누어 맡고, 주말마다 학교에 태워다 주고,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다시 데리러 오는 시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오가는 차 안은 우리 부부의 작은 세미나실이 되기도 했다. 나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풀어놓고, 남편은 궁금한 점을 묻거나 다른 의견을 보탰다. 내 생각에 무조건 동의하기보다 “그건 왜 그렇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질문했고, 남편의 배경지식을 더 해 더 풍성한 결과로, 때로는 더 큰 과제를 던져 주기도 했다.

과제의 논리가 막힐 때에는 토론 상대가 되어 주었고, 내가 자신감을 잃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격려자가 되었다. 대학원에서 만난 교수와 동료들에게 배우는 것도 많았지만, 내 생각을 가장 오래 듣고 함께 다듬어준 사람은 남편이었다.

남편의 지지는 대학원 공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나는 공정무역 활동가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지역의 여러 시민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주말에도 강의와 행사, 회의가 이어지는 날이 적지 않다. 남편은 내가 집을 비울 때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 가정의 일을 맡았다. 내가 하는 활동을 한가할 때 즐기는 취미로 여기지 않고,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일이며 내가 책임지고 성장시켜야 할 일로 존중해주었다.

공정무역 활동을 하며 알게 된 것은 공정함이 누군가의 착한 마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생산자와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면 그들의 노력뿐 아니라 불리한 거래조건과 기회의 차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가정도 다르지 않았다. 공부에는 열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책상 앞에 앉을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가사와 돌봄을 한 사람이 대부분 맡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일에 집중한다면, 두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는 같은 24시간이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같지 않다.

그래서 남편이 가사를 나누어 맡는 일을 단순히 ‘아내를 도와주는 것’ 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다. ‘도와준다’ 는 말에는 가사가 본래 아내의 일이라는 전제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가정은 함께 꾸리는 삶이고 그 안의 책임도 두 사람의 몫이다.

양성평등은 매일 모든 일을 정확히 절반씩 나누는 계산이 아니라, 서로의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 사람의 꿈이 가정의 책임 때문에 사라지지 않도록 시간과 기회를 함께 만드는 일이다. 때로는 운전석에서, 때로는 집안일 속에서, 때로는 늦은 밤의 대화 속에서 남편은 그 평등을 실천해왔다.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공정무역 활동가와 협동조합 운영자로 성장한 것은 나의

선택과 노력으로 이룬 성취이다. 그러나 그 노력이 포기로 끝나지 않도록 삶의 조건을 함께 만들어준 사람은 남편이다. 우리가 집 안에서 나눈 시간은 결국 내가 세상에서 공정을 이야기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 덕분에 나는 아내라는 한 가지 역할에 갇히지 않고 학생, 활동가, 협동조합 운영자,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이제 한 학기만 지나면 대학원 과정이 끝난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 만들어온 배움과 실천은 졸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내게 내어준 시간은 결국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머물지 않고 공정무역 교육과 캠페인에 담아 시민들과 나누었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일로 이어갈 수 있었다.

앞으로도 내가 받은 지지와 기회를 개인의 성취로 간직하지 않고, 생산자와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시민이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싶다.

당신이 내 편이 되어 나의 가능성을 지켜주었기에, 나도 누군가의 가능성이 불공정한 조건 때문에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의 편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이 내 편이어서, 나는 세상의 편이 되었다.